

## 루소의 자서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웃음의 양상\*

- 비웃음을 극복하기

이 용 철\*\*

### [국문초록]

웃음은 루소의 문학적 담론에서만 아니라 루소의 사회정치적 담론의 차원에서까지 핵심적인 주제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웃음이 어린 시절 루소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가 작가로서 사회의 비웃음에 대항하여 미덕을 주장하다가 추방된 후 고독 속에서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한 웃음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 정체성에 대해 불안을 가졌던 루소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던 고모를 데리고 제네바를 떠난 이후로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의 불안감은 애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비웃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표현된다. 그는 작가가 된 후 비웃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대상이 겪는 고통을 동

\* 본 논문은 2013년도 전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주제어: 웃음, 비웃음, 희생물, 정체성, 어둠, 행복, 미소

Le rire, la dérision, une victime, l'identité, les ténèbres, le bonheur, un sourire

정하면서 비웃음을 비판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웃음이 이기심에 결부되어 있음을 밝힌다. 비웃음은 악덕을 처벌하기보다는 미덕을 포함하여 권력이 통제하는 여론을 벗어난 모든 것을 조롱하며, 인간의 가학성을 표출하고 사회의 유대감을 붕괴시킨다.

루소는 작가로서 진리와 미덕만을 위해 글을 쓰지만 자신도 결국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독 속에서 내적인 행복을 되찾았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는다. 또한 그는 글쓰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행복을 부활시키고 젊은 시절의 행복한 장 자크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애정이 필요한 그는 이자적 관계를 넘어 삼자적 관계를 지향한다. 루소는 사회적 기준에서는 가장 불행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를 향유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안할 수 있는 미소를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대신 그들로부터 따뜻한 애정을 얻기 바란다. 그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삼켜 없애버릴 수 없는 내면의 행복의 미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등의 미소를 문학에 아로새겨 놓았다.

## 1. 서론

웃음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유발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수단이지만, 단순히 기쁨의 감정만이 아니라 경멸이나 혐오, 당혹감이나 절망감 등 여러 가지 감정들과 관련을 맺으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웃음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웃는 사람의 우월감은 웃음에서 표현되는 기쁨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고 희극은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고자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희극을 보고 생겨나는 관객들의 웃음이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sup>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웃음이 허영이나 위선 등 인

간의 악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는데, 비웃음의 교육적 기능은 공식 문화에서 웃음 자체를 죄악시한 중세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에 강한 영향을 준 홉스는 우월감에 근거를 둔 웃음에 자기만족적인 웃음을 대비시킨다.<sup>2)</sup>

(…) 웃음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갑작스러운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기형적인 것을 보고 그것과 비교하여 갑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데서 생겨난다. 후자의 웃음은 특히 자신이 가장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함에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계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 잘 웃는 것은 웅졸함의 표시이다.<sup>3)</sup>

홉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월감에서 생겨나는 웃음에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웅졸한 사람들은 타인들의 결점을 끄집어내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을 뿐이다. 진정한 웃음은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만족감에서 생겨난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자람을 발견하고 이에 부끄러움을 느껴 자신의 인간적 자질을 도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볼 때는 팔짱을

1) 우월감에 근거한 웃음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논의는 류종영(2006),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pp. 125-151을 참조할 것.

2) 사실 그리스 고전시대 이전에 이미 부정적인 웃음과 긍정적인 웃음은 구별되었다. ‘gélân’이 환영과 애정과 해방의 웃음이라면, ‘katagélân’은 공격적이고 조롱하는 웃음이다. 이후 웃음(rire)은 육체와 희극적인 것 그리고 외면적인 영역에 결부되고 ‘미소’(sourire)는 즐거움, 감성, 내면적인 영역에 결부되었다(Chamayou, A.(2009), *Jean-Jacques Rousseau ou le sujet de rire*,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p. 33 참조할 것).

3) Thomas Hobbes (1950), *Leviathan*, New York: Polyglot Press, pp. 45-46.

끼고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결점을 고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웃는 사람은 웃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홉스에 따르면 수동적인 비웃음은 적극적인 미덕의 행위를 통해 자기만족적인 웃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루소 역시 이러한 홉스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이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킨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 사회를 구성할 때 ‘자기애’(amour de soi)가 ‘이기심’(amour-propre)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한다. 자기애가 자기 보존을 지향하는 생물적 본능이라면 이기심은 타인과 비교해 자기가 더욱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정신적 욕망이다. 자기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생존과 육체적 안락에 국한되는 자연적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존재를 향유하지만, 이기심을 행동의 원리로 삼는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외부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희생물을 찾는다. 루소는 자기애에서 나오는 웃음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웃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악인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피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뛰쳐나가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 주위에 불안한 눈초리를 던지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을 찾는다. 신랄한 빈정거림이나 사람을 모욕하는 조소가 없다면 그는 늘 우울할 것이다. 조롱하는 웃음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와는 반대로 올바른 사람의 평온함은 내면적이다. 그의 웃음은 전혀 악의가 없는 즐거운 웃음이다. 그는 그 원천을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그는 혼자 있으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다. 그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자기 만족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준다.<sup>4)</sup>

4) *Emile, O. C., IV, Paris: Gallimard, p. 597*(앞으로 루소 원작의 경우 제목, 권, 페이지만

악인 혹은 이기적 인간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타인과 감성의 교환을 통해 자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느낄 뿐이다. 그는 일종의 심심풀이(divertissement)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면서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반면 자기애에서 나오는 자기충족적인 기쁨은 자신을 넘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흘러나가면서 배가된다. 악인의 비웃음이 빼앗는 행위를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감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올바른 혹은 선량한 사람의 웃음은 주는 행위를 통해 개인들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쁨을 통해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 어린 시절 제네바의 시민군들이 동원 훈련을 마치고 벌이던 축제를 아버지와 함께 구경했던 적이 있던 루소는 그때의 광경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선량한 웃음이 정치적 공동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 대부분은 식사 후 생제르베 광장에 모여 장교든 사병이든 모두 함께 분수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수대 위에는 이미 고적대와 햇불을 든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 여인들도 오랫동안 창가에서 구경만 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내려왔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보기 위해 왔고, 하녀들은 포도주를 가져왔고, 아이들 까지도 소란에 잠이 깨어서 웃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엄마 아빠 사이로 달려왔다. 춤이 멈추면 온통 입맞춤과 웃음과 건배와 포옹 일색이었다. (...) 아버지는 나를 껴안으며 온몸을 떨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떨림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 같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크야, 네 나라를 사랑해라. 이 선량한 제네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 모두는 친구이고 형제이다. 기쁨과 화합이 이들 사이에서 넘쳐흐르고 있구나.”<sup>5)</sup>

---

표기함).

5) *Emile*, IV, p. 545.

스타로뱅스키가 말하듯 “『사회계약론』이 법 이론의 차원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축제는 감정의 ‘실존적’ 차원에서 표현한다.”<sup>7)</sup> 『언어 기원론』에서 루소가 시적으로 묘사했듯이 사회의 유대가 생겨나는 곳은 물과 불의 축제를 통해서이다. 물과 불 그리고 물과 불의 결합인 포도주는 공동체가 벌이는 축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흥겨운 춤을 통해 퍼져나간다. 이 즐거움과 화합의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웃음이다. 축제에 참석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계급적 차별을 무너뜨리는 기쁨의 웃음을 통해 하나가 되는 평등한 공동체를 체험한다.<sup>8)</sup> 바흐친이 표명한 바 있듯이 전복적인 웃음을 통해 “전체성, 자유, 평등, 풍요의 유토피아적 왕국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민중들의 제2의 삶의 형식”<sup>9)</sup>이 되는 카니발의 축제성야말로 일반의지와 더불어 루소가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또 다른 주축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루소의 이론적 담론의 차원에서까지 웃음은 핵심적인 주제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루소의 웃음에 대해 관심이 일게 된 것은 의아스러운 일로 보인다.<sup>10)</sup> 우리는 샤마유의 『장 자크 루소 혹은 웃는 주체』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녀와는 달리 루소에게 웃음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시점을 『연극에 대해 달랑

6) *Lettre à d'Alembert, V*, pp. 123-124.

7) Strarobinski, J. (1971), *J.-J.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suivi de sept essais sur Rousseau*, Paris: Gallimard, p. 121.

8) 이는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도 해당된다. 리오 담로시는 “유럽 전역에서 시민군은 지배자들의 용병과 대조적으로 민중 정신의 구현으로 여겨졌으며 (...) 정말로 제네바의 시민 집단은 과두 정치 체제의 소수 독재자들로부터 의혹에 찬 눈길을 받았다”(리오 담로시(2011), 이용철 역, 『루소: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 서울: 교양인, p. 41.)고 말한다.

9) 미하일 바흐친(2001),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p. 32.

10) 우리가 알기로 Chamayou, A. (2009) 이전에는 루소의 웃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서가 나온 바 없다.

베르에게 보내는 편지』보다 더욱 앞당겨 그의 유년시절로 잡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웃음과 비웃음이 그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그가 작가로서 사회의 비웃음에 대항하다 유폐된 고독 속에서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한 웃음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비웃음의 희생물

루소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욕망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되풀이 말한다. 흔히 애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루소가 어린 시절부터 성적 정체성에 대해 의혹과 불안을 느꼈다는 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sup>11)</sup> 특히 그가 10살 날 무렵 그의 아버지는 한 퇴역 장교와 싸운 후 루소를 키우던 고모만을 데리고 제네바를 떠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불안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과 더불어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집안에서 “왕자라고 해도 받지 못했을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고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상”<sup>12)</sup>처럼 떠받들어졌던 그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일종의 고아이자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이다.<sup>13)</sup>

11)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적 전기에 속하는 P. P. Clément (1976). *J.-J. Rousseau, de l'éros coupable à l'éros glorieux*, Neuchâtel: Baconnière에서 저자는 장 자크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서 불안한 성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12) *Les Confessions*, I, p. 10.

13) 스타로뱅스키는 위선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을 보세에서 일어난 ‘부러진 빗살의 일화’로 잡고 있지만(J. Starobinski, (1971), pp. 17-21 참조할 것), 엘므키는 그보다 시기를 앞당겨 그를 버리고 고향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느낀 루소

12살이 된 루소는 집안어른들의 결정으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법무사의 도제로 들어가지만 무능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바보라는 말만 듣다가 끝내 해고를 당하고 만다. 이후 조각공의 도제로 들어간 그는 주인 뒤코맹의 거친 성격으로 인해 “내 어린 시절의 광채가 모두 없어지고 내 정답고 활발한 성격이 무더졌으며, 나는 신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진짜 도제의 처지로 떨어져”<sup>14)</sup> 버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어린 시절의 광채”란 무엇일까?

내가 배운 라틴어며 고대며 역사며 모든 것이 오래도록 잊혀졌다. 세상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를 뵈러 가곤 했을 때 그분은 이제 내게서 자신의 우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나는 귀부인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한 장 자크가 아니었다.<sup>15)</sup>

그의 내면적 가치의 핵심은 지식(라틴어며 고대며 역사)과 미덕(로마 사람들)과 사랑스러움(우아한 장 자크)이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재능이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적 가치가 드러날 수 없었고, 점차 그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마저 훼손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을 느낀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를 지배하는 감정은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견습공 시절의 이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의 분노와 실망감이 그의 정치사회적인 성찰에 대한 출발점을 이룬다고 말할 정도로 그 사건이 루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C. Elmquist(1996), *Rousseau, Père et Fils*,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pp. 26-32 참조할 것).

14) *Les Confessions*, I, p. 30.

15) *Les Confessions*, I, p. 30.

견습공으로 있는 동안이나 그 후에도 무언가 달콤한 것을 사려고 얼마나 여러 번 나갔는지 모른다. 제과점에 가까이 가면 계산대에 여점원들이 언뜻 보인다. 그러면 벌써 저희들끼리 이 맛있는 것을 밝히는 아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먹음직스러운 배를 걸눈질한다. 그 좋은 냄새가 나를 유혹한다. 그 바로 옆에서 두세 명의 젊은이가 나를 바라본다. (...)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람들로 보인다. 가는 곳마다 겁을 먹고 어떤 장애에 가로막힌다. 부끄러움과 함께 욕망은 더해 가지만, 결국 나는 바보처럼-호주머니에는 갈망을 충족시킬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아무 것도 사지 못하고 갈망에 고통스러워 하면서-되돌아온다.<sup>16)</sup>

루소는 애정의 대체물인 달콤한 굳것질거리를 갈구하면서도 사람들로 부터 먹을 것을 밝히는 먹보라고 비난을 받을까 결국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sup>17)</sup>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루소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되풀이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27살의 루소는 리옹의 치안유지관인 마블리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가정교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게다가 그는 마블리 부인으로부터 애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상류사회의 예법과 말씨를 가르치다가 그가 “매우 서투르고 수줍고 멍청해서” 결국 그를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낮선 객지에서 마음을 둘 곳이 없던 루소는 포도주를 훔쳐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는데, 안주로 먹을 것을 살 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 자신이 빵을 사자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칼을 찬 훌륭한 신사가 빵 한 조각을 사러 빵집에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

16) *Les Confessions*, I, p. 37.

17) 욕망, 욕망의 대상, 욕망을 금지하는 시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Starobinski, J. (1961), *L'oeil vivant*, Paris: Gallimard, pp. 93-188을 참조할 것.

가? (...) 나는 브리오슈를 샀다. 그러기까지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을 위해 혼자 나가 때때로 시내 전체를 돌아다니고, 서른 개나 되는 제과점들 앞을 지나친 후에야 겨우 어느 가게로 들어갔다. 내가 가게 문턱을 감히 넘기 위해서는 가게에 단 한 사람만 있어야 하고 그 사람 인상이 대단히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sup>18)</sup>

루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불안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투영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면서 비웃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겉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내적 욕망을 드러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격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혼자 지키고 있는 가게에서만 빵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루소는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욕망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마리옹에 대한 무고’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것 역시 루소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내지 따돌림이다. 베르첼리스 백작부인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간 루소는 백작부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녀로부터 바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느낀다. 루소를 일종의 서기로 썼던 백작부인은 루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모습으로 판단했고, 나를 한낱 시종으로 본 나머지 나는 그녀의 눈에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없었다”.<sup>19)</sup> 게다가 그는 백작부인의 총애를 받던 로렌치 부부가 그녀의 마지막 나날 동안 자신이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계략을 세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숨겨진 이해관계가 벌이는 그 간악한 장난을 체험했고 (...) 그 장

---

18) *Les Confessions*, I, p. 269.

19) *Les Confessions*, I, p. 82.

난을 초래하는 허울뿐인 질서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감을 갖게 되었다”<sup>20)</sup>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루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면서 그 주역들 중의 한 사람인 로렌치 부인의 조카딸 소유의 작은 은색 리본을 훔친다. 그는 사브랑 부인이 “바랑 부인이 내 작은 칼에 달라고 주었던 은색 광택이 나는 작은 리본”<sup>21)</sup>을 가져간 것에 대해 두고두고 애석해하던 참이었다. 이러한 정황상 그의 의도가 그 리본을 무고의 대상이 된 마리용에게 주려고 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애정의 갈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르첼리스 백작 부인의 사망 이후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 중 없어진 리본이 루소의 방에서 발견된다. 집안사람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심문이 이루어졌고, 잠시 머뭇거리던 루소는 마리용이라는 예쁘고 얌전한 젊은 요리사가 자기에게 그 리본을 주었다고 말한다.

처벌은 별로 두렵지 않았다. 오직 수치만이 두려웠다. 그리고 나는 죽음보다도 죄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수치를 더 두려워했다. (...)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도둑놈, 거짓말쟁이, 중상모략자라고 인정되고 선고받는 공포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과 같은 혼란이 내게서 다른 모든 감정을 앗아갔다.<sup>22)</sup>

비웃음은 베르그송이 ‘사회적 길들이기’라고 말하듯이 교육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수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루소는 극단적인 수치심으로 인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

20) *Les Confessions*, I, p. 82.

21) *Les Confessions*, I, p. 60.

22) *Les Confessions*, I, p. 60.

가하고 더 나아가 대질심문에서 무고당한 소녀를 맹렬히 비난하는 범죄적 상황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루소는 만약 상황을 주재하던 라 로크 씨가 자신을 가만히 따로 불러 잘못을 고백하라고 타일렀다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는데, 이러한 발언은 그가 브리오슈를 사기 위해서는 “가게에 단 한 사람만 있어야 하고 그 사람 인상이 대단히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는 말을 연상시킨다. 그가 욕망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대일 대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희적인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주시하는 시선 앞에서 격화된 수치심은 가학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마리용을 그 제물로 삼는다. 루소의 경우 죄를 짓는 것을 막았어야 할 수치심이 도리어 타인을 파괴하는 죄를 짓도록 이끌며, 이는 다시 그의 내면에서 자기부정적인 죄책감을 만들어낸다.

루소는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고백록』을 쓴 주요한 동기들 중의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 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동시에 진리 즉 “정직함과 명예”를 위해 평생 자신이 당한 박해가 그녀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수치심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어 그들을 사회의 타락에 동참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예감한다. 후일 그는 『에밀』에서 “본래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은 악을 알면서 비로소 생겨난다. 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sup>23)</sup>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악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회이고, 악과 그에 따른 수치심은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개인에게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소가 사회의 악에 대해 비난하게 될 때 비웃음 역시 그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3) *Emile*, IV, p. 497.

### 3. 비웃음에 대한 비판

보통 스스로를 비웃음의 희생물로 제시하는 루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놀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1731년 파리에 잠깐 있었을 때 그를 고용했던 인색한 고다르 대령에게 아우하는 풍자시를 보낸 것이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복수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충족감을 제공하는 데, 루소 역시 이러한 심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소품은 사실 졸작이긴 하지만 신랄함도 없지 않고 풍자의 재능도 엿보게 하는데, 어쨌든 내 붓끝에서 나온 유일한 풍자적 작품이다. 나는 이런 재능을 뽐내기에는 너무도 양심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때때로 나를 옹호하기 위해 쓰인 몇몇 논쟁적인 글들로 미루어 볼 때, 만약 내게 싸움꾼의 기질이 있었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나를 웃음거리로 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sup>24)</sup>

그러나 보통 루소는 특정한 개인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에 대해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루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오직 악의 없는 기쁨의 표지일 뿐이고, 잔인하고 조소적인 기쁨의 표지는 비록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한다”<sup>25)</sup>고 말하는데, 악의적인 웃음에 대해 루소가 분노를 터뜨리는 일례는 돌바크의 살롱에서 벌어진 소동에서 볼 수 있다. 1754년 초 어떤 성직자가 자기 가 쓴 비극의 일부를 소리 내어 읽다가 돌바크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24) *Les Confessions*, I, p. 162.

25) *Les Confessions*, I, p. 140.

그때 격노한 루소는 사제에게 달려들어 그의 원고를 빼앗아 마룻바닥에 집어던지고 놀란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희곡은 아무 가치가 없고 당신이 쓴 서문은 결함투성이입니다. 여기 있는 신사들 모두가 당신을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당신 마을에서 보좌신부 노릇을 계속 하십시오.”<sup>26)</sup> 루소의 분노는 비웃음과 수치에 대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생겨난 것으로 짐작되는데, 루소는 웃는 주체가 느끼는 쾌감보다는 비웃음의 대상이 느끼게 되는 수치심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점쟁이』가 처음 공연되는 날 카페에 조반을 들러 갔다가 한 점쟁은 퇴역장교가 그 전날 총연습을 참관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극도의 초조감을 느끼면서 카페를 빠져나온다.

그가 거짓말을 지껄이고 있는 동안 나는 얼굴이 붉어져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 결국 나는 누가 나를 알아보고 그에게 망신이나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시던 코코아를 서둘러 마저 마시고, 고개를 숙여 그의 앞을 지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 나는 거리에 나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카페에서 나오기 전에 누가 나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다면, 나는 그 가엾은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그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감만으로도 꼭 무슨 죄라도 진 사람처럼 민망하고 당황한 꼴을 보였을 것이다.<sup>27)</sup>

루소는 퇴역장교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면

26) *Correspondance Complète de J.-J. Rousseau*, ed. R. A. Leigh, 52 vols, Geneva: Institut et Musée Voltaire, 1965-1971; Oxford: Voltaire Foundation 1971-1978, 3 vol, pp. 347-348(리오 담로시(2011), p. 366에서 재인용).

27) *Les Confessions*, I, p. 377.

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퇴역장교가 받을 비난과 비웃음 그리고 심리적 고통은 거짓말이라는 그의 사소한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을 때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 루소의 ‘동정’(pitié)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도 심리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성향을 보인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결점이나 실수로 인해 지나치게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장면을 보는 사람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동정심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껴야 할 순간에 웃는다면 그 비웃음은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웃음은 동정심으로 전환되어야 바람직하며, 동정심을 느낀 사람은 흡스의 말대로 동정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경멸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루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악덕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관습이나 여론에 맞지 않는 언행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노골적으로 악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웃음을 피하기 위해 악덕을 가장하거나 모방한다. 루소는 한 젊은 장교의 사례를 들면서 사회가 비웃음을 통해 어떻게 인간을 체제 순응적으로 만들고 악덕을 조장하고 있는가를 간명히 보여준다.

그는 명예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욕망이 없어도 여자를 유혹하게 되고, 수줍음 때문에 잘난 체를 한다. 그는 나쁜 품행에 대한 취향을 갖기도 전에 훌륭한 품행을 비웃고, 방탕에 빠질 줄도 모르면서 방탕함을 자랑한다. 나는 스위스 근위대의 어떤 젊은 장교의 고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동료들의 떠들썩한 쾌락에 매우 짜증을 느꼈지만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워 차마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짓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담배 피우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지요. 취미는 습관에서 오는 법입니다. 언제까

지나 어린아이여서는 안 되니까요.”<sup>28)</sup>

비웃음은 한 개인을 공동체에서 따돌리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덕하지만 고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유덕하지는 않더라도 사교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하기보다는 미덕을 포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웃음의 역기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분야는 희극이다. 루소는 우선 “비극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고 희극은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고자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시비를 건다. 루소는 이러한 발언으로부터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인간 존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상이나 인간 이하의 인간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 작가나 배우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라는 추론을 이끌어낸다. 또한 사람들은 “연극이 (...) 미덕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악덕을 가증스럽게 만든다”<sup>29)</sup>고 하지만 루소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면서, “희극적인 것의 즐거움 자체가 인간 마음의 악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희극이 재미있고 완벽할수록 그 효과는 풍습에 더 치명적인 것이 이 원칙의 귀결이다”<sup>30)</sup>라고 단언한다. 그는 그 구체적인 예로 희극의 거장 몰리에르가 『인간 혐오자』(*Le Misanthrope*)에서 알세스트(*Alceste*)를 조롱하면서 미덕을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비판한다.

당신은 두 가지 사실을 내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알세스트가 이 연극에서 올바르게 진지하고 존경받으면서 진정 선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작가가 그를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몰리에르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sup>31)</sup>

28) *Emile, IV*, pp. 658-659.

29) *Lettre à d'Alembert, V*, p. 21.

30) *Lettre à d'Alembert, V*, p. 31.

만약 알세스트가 진실로 사람들을 혐오하는 자라면 그는 사악한 인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악행 때문이지 실제로 사람들을 증오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대해 품는 사랑 때문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다. 루소는 알세스트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sup>32)</sup> 겉보기에는 악덕처럼 보이는 알세스트의 인간 혐오가 실상은 인류에 대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유덕한 알세스트가 웃음거리가 된 것은 작가가 “관객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취향을 참조하고”<sup>33)</sup> 그 취향에 반대되는 모든 것, 특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미덕을 웃음거리로”<sup>34)</sup> 삼기 때문이다. 악덕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에 종속되어야 하는 즐거움 즉 웃음이 이제는 여론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용인되는 악덕보다는 당대의 유행을 거스르는 미덕이 더욱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루소는 이미 최초의 출세작인 『학문 예술론』에서부터 이기심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진리가 아닌 명성만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자기희생에 근거를 둔 미덕이 오히려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쓸모없고 경박한 연설가들은 극히 해로운 역설로 무장하고 사망에서 설쳐대면서 신앙의 기초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미덕을 파괴한다. 그들은 조국이니 종교니 하는 이 오래된 말을 경멸적으로 비웃으며, 그들의 재능과 철학을 인간들 사이에서 신성하다고 간주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깎아내리는 데 바친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미덕이나 우리의 신조를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

31) *Lettre à d'Alembert, V*, p. 34.

32) Mostefai, O. (2003), *Le citoyen de Genève et la République des lettres*, New York, Petet Lang Publishing, Inc., p. 83 참조할 것.

33) *Lettre à d'Alembert, V*, p. 33.

34) *Lettre à d'Alembert, V*, p. 34.

은 바로 대중의 의견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신의 제단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추방해 무신론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오, 유명해지려는 열광이여,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sup>35)</sup>

이들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명성이다. 이들은 선량하고 순박한 대중들이 미덕에 대해 갖는 믿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파괴하면서 지식인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여론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가장하고, 자기 자신의 성격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자신과는 다르게 보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열광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sup>36)</sup> 배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기심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심리적인 우월감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매개로 권력으로 작용할 때이다. 이때 비웃음은 개인 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사회적 유대를 붕괴시키고 사회 내에서 일종의 전쟁 상태를 만들어낼 정도로 파괴성을 갖는다. 루소는 1756년 데피네 부인의 생일에 참석한 손님들이 장터에서 벌인 장난을 그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은 거리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거기서는 일종의 시장이 열렸다. (...) 거기서는 향료가 든 빵을 팔고 있었다. 일행 중 한 젊은이가 그것을 좀 사서 군중 가운데로 하나씩 던질 생각을 해냈다. 그러자 농민들이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달려들어 서로 싸우고 넘어지는 광경을 보고 너무 흥겨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

35)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III*, p. 19.

36) *Lettre à d'Alembert, V*, pp. 72-73.

같은 흥겨움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빵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젊은 남녀들은 달리고 서로 영켜 다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매우 유쾌하게 보였다.<sup>37)</sup>

이 장터의 광경은 제네바 생제르베 광장에서 벌어진 축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장터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던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인격을 빼앗는 행위이다. 빈자들은 굶주린 동물처럼 빵을 줍기 위해 몰려들어 서로 경쟁하고 마침내는 부상자까지 속출한다. 부자들은 단지 재미로 빈자들을 분열시키고 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을 비웃으며 바라본다. 반면 앞에서 보았듯이 생제르베 광장에서 모인 평등한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공유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긴다. 한편에서는 경쟁이 또 한편에서는 화합이 지배하는 것이다. 따뜻한 심성의 소통이 아니라 오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이기심과 가학적 성격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미덕은 언제나 쉽사리 악에 의해 희생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노리개가 되어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루소는 인류 최고의 성인인 예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족 전체로부터 욕설과 비웃음과 저주를 들으며 고통 속에서 숨겨진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죽음이다”<sup>38)</sup>라고 탄식한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독 당근을 먹지 않았을 것임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쓴 잔에 든 모욕적인 조소를, 그리고 죽음보다 백배나 더 고통스러운 경멸을 마셔야 했을 것이다”<sup>39)</sup>라고 말하면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짙은 우려를 내비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37) *Les Ré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92.

38) *Emile*, IV, p. 626.

39)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III, p. 15.

세상의 여론을 무시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미덕을 추구하는 글을 쓰지만 자신 역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가 우려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루소가 미덕을 찬양하고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미덕을 연기하는 타르튀프(Tartuffe)와 같은 위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를 사람을 증오하는 괴물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고독 속에 가두어버린 후 그를 비웃는다.

#### 4. 웃음으로 비웃음을 극복하기

루소는 『학문 예술론』으로 문단에 등단한 후 본격적인 사교계 생활을 영위하면서 말하는 데 곤란을 느낀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이 즉흥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정도로 재치가 없을뿐더러 사교계 사정에 어두워 무심코 한 말이 사람들에게는 무례한 언행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내가 앞에 있었다라면 사람들은 결코 나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그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교계를 떠나 숨어서 글을 쓰겠다고 결심한”<sup>40)</sup>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겉모습으로 인해 바보라는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 고독 속에 몸을 숨기고 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명하게 내보이려고 시도한다. 이때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고독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시선을 차단하여 루소가 안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루소는 미덕을 비웃는 시대에서 미덕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통해 생겨나는 작가의 이미지와 자신의 삶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

40) *Les Confessions*, I, p. 116.

사실을 점차 의식하게 된다. 루소가 아무리 고독 속에 숨어 있으려 해도 작가로서의 명성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는 독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작가의 이미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자기개혁을 통해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대담하고 오만하며 겁이 없어 어디서나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하여 “당시의 풍습이나 규범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빈정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고 마치 벌레를 손가락으로 집어 짓눌러버리듯 그들의 재치 있는 말을 내 단호한 주의주장으로 짓눌러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미덕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면서 생겨나는 긴장감을 견딜 수 없었고, 파리를 떠나 전원의 삶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겁이 많고 남의 기분을 살피는 소심한 사람, 한마디로 예전과 똑같은 장 자크로 돌아”<sup>41)</sup>오게 된다.

이후 그는 글쓰기를 통해 미덕을 주장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로 내몰리고 악의적인 웃음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이것은 박해 망상으로까지 발전해 나간다. 그 망상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훼손하고 위조할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나타나고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형된다. 그의 글은 그의 육체적 얼굴보다 더 진정한 그의 얼굴이다. 그런데 그의 글이 오해를 받는다면 그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순수한 웃음을 박탈하고 악의적인 웃음을 흘리는 괴물의 가면을 씌우려 한다고 생각한다. 루소는 모리스 캥탱 드 라 투르가 그려 1753년 파리의 살롱에 전시된 파스텔화로 된 초상화만을 유일하게 좋아했다. 루소가 영국으로 망명한 후 데이비드 흄은 스코틀랜드의 화가 램지에게 아르메니아풍의 긴 옷에 모피 모자를 쓴 모습으로 루소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주선했는데, 루소는 그것이 자신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사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는 그들이 “그 무시무시

41) *Les Confessions*, I, p. 417.

한 채색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만들면서 그를 무시무시하고 단호한 사람<sup>42)</sup>으로 그려 “끔찍한 키클롭스의 모습<sup>43)</sup>을 부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루소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그를 가증스럽고 사악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는 “비열하고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예를 들면 “비열한 사기꾼, 쪼쪼한 거짓말쟁이, 대단찮은 험잡꾼, 선술집이나 갈보집의 단골”로 만든다. 그리하여 영국 판화에서 보인 “무시무시하고 건방진 태도”는 “음흉하고 냉소적인 미소” 즉 “댕드노의 양을 사는 파뮈르주의 미소<sup>44)</sup>로 대체되고, 그는 공포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루소의 얼굴에는 그가 사람들에게서 비난한 새디스트적 웃음이 아로새겨진다. 마치 “보좌신부의 신앙 고백이 불경한 글이 되었고, 『신엘로이즈』가 음란소설이 되었으며, 『사회계약론』이 폭동을 선동하는 책<sup>45)</sup>이 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씌운 사악함과 조롱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사악한 동기에서 집필된 악덕을 조장하는 작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루소에게 자신의 죄를 포함하여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고백의 행위는 사람들이 그에게 씌운 가면을 벗겨내는 동시에 비웃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발자국이다. 루소는 랑베르시에 양으로부터 볼기를 맞았을 때 느꼈던 최초의 관능적 흥분에 대해 말하는 순간 “말하기에 가장 괴로운 것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sup>46)</sup>라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죄 혹은 악덕보다 비웃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의 편견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

42) *Rousseau juge de Jean-Jacques*, I, p. 782.

43) *Rousseau juge de Jean-Jacques*, I, p. 777.

44) *Rousseau juge de Jean-Jacques*, I, p. 782.

45) *Rousseau juge de Jean-Jacques*, I, p. 964.

46) *Les Confessions*, I, p. 18.

증한다. 따라서 루소에게 고백의 행위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또한 타인들로부터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한편에는 타인들을 비웃고 싶다는 이기심이 숨어있을 수 있기에, 고백은 자신의 이기심을 소멸시키고 자기애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를 모두 내보이는 루소의 고통스러운 고백 앞에서 독자는 루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정심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러나 루소는 『고백록』을 낭독한 후 자신의 목소리가 기대하던 반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의 침묵 속에 갇혀 소멸되어버리는 것을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루소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에 대해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어둠과 결부시킨다. 『에밀』의 인쇄가 이유도 모르게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거의 최고조의 불안을 느끼면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토로한다.

나는 어떠한 불행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만 하면 결코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타고난 성향은 어둠을 두려워하며, 나는 그 어두운 분위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 비밀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것은 경솔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한 내 성격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괴물을 보아도 그다지 무서워할 것 같지 않지만, 밤중에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쓴 어떤 형체를 어렴풋이 본다면 무서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으로 자극받은 나의 상상력은 결국 유령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골몰했다.<sup>47)</sup>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원래 상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47) *Les Confessions*, I, p. 566.

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언제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생겨나는 이러한 경계심은 필요 이상으로 상상력을 가동시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두려움을 느낀다. 에밀의 가정교사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몽테뉴가 그랬듯이 훈련과 습관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모든 일에서 습관이란 상상력을 죽이기”<sup>48)</sup> 때문에 어둠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이를 자주 어둠 속에 데리고 가서 어둠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루소는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무서운 것들에 익숙해지게 하는 훈련을 더욱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쾌활함”을 덧붙일 것을 권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 먼저 어둠에 적응하는 훈련의 예를 보기로 하자. 가정교사는 커다란 방에 미로를 만들고 그 미로에 선물상자들을 갖다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그 방에 있는 상자들을 찾아오도록 시킨다. 그리고 그 놀이의 유쾌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상자를 손에 들고 자신의 원정에 우쭐대며 돌아오는 꼬마 헤라클레스를 상상해 보라.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의식을 치르듯 그것을 연다. 여기서 기대하던 설탕에 절인 과일 대신 이끼나 솜 위에 가지런히 놓인 풍뎅이, 달팽이, 숯, 도토리, 무, 그 이외의 비슷한 다른 물건들을 발견하고, 즐거운 패거리가 터트리는 웃음과 함성 소리가 들린다.<sup>49)</sup>

상자에 들어 있을 선물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에 들떠 어둠 속에서 선

---

48) *Emile*, IV, p. 384.

49) *Emile*, IV, p. 387.

물 상자를 찾는 아이에게는 어둠에 대한 무서운 상상이 생겨날 여지가 없다. 그는 선물을 찾아 돌아오면서 상자 속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과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우쭐함으로 신이 난다. 그리고 상자 속의 가짜 상품에 사람들이 터뜨리는 유쾌한 웃음으로 끝을 맺는 밤놀이에 대한 추억은 영원히 뇌리에 남아 어둠에 대한 공포를 불식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루소는 보통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가면을 또 다른 예로 들면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둠이 그 속에 있는 사물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공간을 낮선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가면은 인간의 얼굴을 변형시켜 낮선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낮선 것이 유발하는 공포는 그 낮선 것을 습관을 통해 낯익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유쾌한 표정의 가면을 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면의 표정과 유사한 웃음을 지우면서 가면의 낯설음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차차 좀 더 흥측한 가면을 사용하여 두려움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면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보이는 조건 반사처럼 아이는 가장 무서운 가면을 보더라도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터뜨리는 즐거운 웃음은 공포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루소는 랑베르시에 목사의 기숙사에서 어둠의 공포를 극복한 자신의 체험에 대해 말한다. 당시 루소는 겁쟁이인 자기 외사촌과는 달리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곤했다. 목사는 몹시 어두운 어느 가을 저녁 루소의 용기를 시험해볼 양으로 교회 설교단에 두고 온 성경을 가서 찾아오라고 명한다. 그는 등불도 없이 길을 나서 “용감하게” 묘지를 지나간다. 그는 “한데에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했고 (...) 별별 떨며”<sup>50)</sup>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마침 강아지를 만나 용기를 되찾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50) *Emile, IV*, p. 385.

큰 공포에 사로잡혀 혼비백산하여 교회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그는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랑베르시에 목사가 터뜨리는 웃음소리를 듣는다.

나는 집까지 돌아왔다. 막 들어가려던 나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는 랑베르시에 씨의 목소리를 분간했다. 그 웃음이 나 때문이라고 지레짐작한 나는 내 모습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 문 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나는 랑베르시에 양이 나를 걱정하여 하녀에게 등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소리와, 랑베르시에 씨가 그 대답한 사촌형을 대동하고 나를 찾으러 갈 채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원정의 명예가 모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순간 공포심은 모두 없어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만 남았다. 나는 달음질쳐 교회로 날아갔다. 길을 잃고 헤매지도, 더듬거리지도 않고 교단에 도착한 나는 교단으로 올라가 성서를 집어 들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문을 닫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 걸음에 교회 밖으로 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가, 겁에 질렸지만 나를 위한 구조를 미리 막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나는 탁자 위에 성서를 집어던졌다.<sup>51)</sup>

문밖에서 들리는 랑베르시에 목사의 웃음소리는 처음 교회 밖으로 도망칠 때 만난 강아지의 애무처럼 루소에게 깊은 안도감을 부여한다. 루소는 이로부터 “옆방에 모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sup>52)</sup>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의 상황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어둠에 대한 공포를 밀어낸 것은 오히려 비웃음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이다. 목사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루소를 보는 순간, 그의 웃음은 루소를 조롱하는 비웃음으로 바

51) *Emile*, IV, p. 386.

52) *Emile*, IV, p. 386.

떨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신없이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때 그에게서 어둠에 대한 공포는 놀이의 즐거움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 즉 더욱 커다란 정신적 공포가 애초에는 물리적 위험에서 나온 어둠에 대한 공포를 압도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방에 다시 들어온 후 임무를 수행해 자존심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겁에 질렸다”라는 말은 어둠에 대한 공포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로뱅스키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했다고보다는 “오히려 어둠과 박해의 연관관계를 만들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sup>53)</sup>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때 루소가 보였던 용기는 자기개혁 당시의 그의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사촌과는 달리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친 장 자크는 명성을 추구하는 다른 문인들과는 달리 오직 진리와 미덕만을 위해 글을 쓴다고 선언한 작가 루소와 다르지 않다. 그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친 후 독자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자기개혁을 실천하지만,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미덕을 행하는 즐거움을 박탈하고 오히려 그것을 “혐오와 심지어 반감으로 바꾸어”<sup>54)</sup> 버린다. 장 자크가 어둠 속에서 보였던 용기가 실상은 두려움과 결부된 것이라면, 자기개혁 당시 루소가 실천한 미덕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도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개혁은 지속되지 못하고, 미덕은 루소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을 막는 항구적인 방과제의 역할을 하는 데 실패한다.

루소는 『고백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후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을 추구하는데, 이때 그의 심리를 지배하는 것은 체념 혹은 무관심이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오직 충동만으로 행동하고 그

53) Starobinski, J. (1992), “Surmonter la peur”, *Rousseau and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Alden Press, p. 122.

54)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53.

행동은 운동의 법칙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는” 자동인형 같은 존재들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는 인간적인 의도나 의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루소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들이 자신을 증오하기 위해 그들 멋대로 만드는”<sup>55)</sup> 자신의 겉모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권력가나 부자가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나 노리개로 만들기 위해 그들로부터 인격을 박탈한다면, 고독한 산책자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하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 의미가 배제된 세계, 즉 순수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가 고독에서 잠시 빠져나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거짓 애정이나 과장되고 조소 섞인 찬사나 악의에 찬 감언의 놀림감이 되어 지내는 우울한 순간”<sup>56)</sup>에, 그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어떤 의도나 의미를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통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모욕적이고 조소적인 시선에 익숙해지기 위해”<sup>57)</sup>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로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아무리 접촉한다 해도 낮은 타인들의 시선은 가면과는 달리 결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리 한 가운데 위치한 집을 나서 자연 속의 고독을 찾아나설 때 그는 “도중에서 내 마음을 조이게 하는 수많은 대상들을 보고 만나절은 고뇌 속에서 지나간다”<sup>58)</sup>며 고통을 토로한다. 그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마침내 자연의 품안에 안겨 “이 세상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강렬한 내적 기쁨을 맛볼”<sup>59)</sup> 때이다. 그가 이 행복한 고독

---

55)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19.

56)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81.

57)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82.

58)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p. 1082-1083.

59)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83.

속에서 부재하는 타인들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웃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내게 가했던 고통은 내게 조금도 상처를 주지 못한다. 그들이 아직도 내게 가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이 나를 동요시킬 뿐이다. 하지만 변함없는 감정으로 내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방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고 확신하므로, 나는 그들의 모든 음모에 대해 비웃으며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을 즐긴다.<sup>60)</sup>

박해자들이 루소를 고독한 자연 속으로 몰아넣은 덕분에 루소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아무도 흔들어놓지 못할 그리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행복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루소가 그곳에서 찾은 행복 앞에서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박해자들의 모든 음모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난다. 그가 비록 그들의 시선 앞에서는 흔들릴지라도, 루소는 행복한 고독 속에서 그들이 그에게 던지는 비웃음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에 대한 비웃음은 루소에게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애정이 필요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5. 맺는말: 글쓰기와 미소

루소가 고독 속에서 되찾은 행복 혹은 평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장 발이 일종의 ‘실존적 신비주의’라고 명명한 순수한 현존의 순간, 사유가 소멸되고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오직 ‘존재의 감정’(sentiment de l'ex-

60)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84.

istence)으로 축소된 가장 희박한 지각 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도취이다. 그러나 루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이 주체의 소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의 대상이 될 때마다 독서에서 구원의 힘을 찾는데, 그 독서의 본질이란 대화이다. 그가 마블리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했을 때 그는 그 어렵게 구한 브리오슈를 먹고 흠친 포도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일단 이 귀하고 사랑스런 브리오슈를 손에 넣고 내 방에 꼭 틀어박혀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 포도주 병을 찾았을 때는, 소설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거기서 혼자 얼마나 맛있고 조출한 술잔치를 벌였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둘이서 대화를 나누며 먹지 않을 때는 나는 엉뚱하게도 먹으면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게 없는 사교 모임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나는 번갈아 가며 책 한 페이지를 맛나게 읽고 한 입 맛나게 집어삼켰다. 마치 내 책이 나와 함께 회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sup>61)</sup>

이러한 독서의 행복은 말년의 루소에게서 글쓰기의 행복으로 전환된다. 루소는 “천진무구하고 평온하게 지냈던 내 청년 시절의 감미로운 추억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면서 행복을 연장한다. 심지어는 어린 장 자크에게 두려웠던 순간들마저 추억으로 떠오르고 글로 옮겨지는 순간 행복으로 변하는데, 이미 그는 『에밀』에서도 보세에서 경험한 어둠 속의 모험에 대해 말하려하면서 즐거운 추억과 글쓰기의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늙어가면서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서른 살보다 열 살 때 한 일을 더욱 기꺼이 회상한다. 독자들이여, 그러니 때로 내가 나 자신의 예를 끌어대는 것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이 책을 제대로 만들려

61) *Les Confessions*, I, p. 269.

면 나도 즐겁게 책을 써야하기 때문이다.<sup>62)</sup>

그가 사람들과 분리되어 고독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다가갈수록 예전에 잃어버렸던 낙원의 문이 조금씩 열리며, 그는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의 행복에 빠져든다. 그 찬란한 행복의 빛은 현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주문이다. 글쓰기의 행복은 최후의 저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다음과 같이 완성된다.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 내 몽상들을 쓰고 있다. 더 늙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내 바람대로 내가 지금과 같은 성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것을 쓰면서 맛보는 감미로움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지나간 시간이 되살아남으로써 이를테면 내 존재는 둘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친교의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늙어서 마치 더 젊은 친구와 사는 것처럼 다른 나이의 나와 함께 살 것이다.<sup>63)</sup>

루소는 글 속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영원한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어둠의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그 기억을 반추하면서 행복을 떠올린다. 그 행복한 추억 속에 등장하는 젊은 장 자크는 마치 밝은 옆방에 있는 사람처럼 “평화롭게 웃고 이야기”함으로써 음모의 어둠 속에서 고통 받는 늙은 루소를 안심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루소로부터 나와 루소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미소가 루소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애정이 필요한 그는 이자적 관계를 넘어 삼자적 관계를 지향한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인간인 루소가 누리는 소박한

62) *Emile*, IV, p. 385.

63) *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I, p. 1001.

행복과 그 역경 속에서도 그가 짓는 미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왜냐하면 소박한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선량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선망에 의해서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데”, “그것은 (...)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평화롭고 순박한 상태로 내려가 똑같은 행복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느끼기 때문이다”.<sup>64)</sup> 옆에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루소가 누리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존재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릴 수 있는 무조건적인 행복의 원형이다. 루소는 절대적인 불행의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자신을 내세워 우월 이론에 근거한 비웃음에 대항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신에 만족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이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더욱 그의 행복은 누구나 그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은 단지 사람들에게 “오로지 유쾌한 생각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즉 따뜻한 미소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sup>65)</sup>이 된다. 루소는 독자들에게 오직 존재감의 향유에서 비롯되는 행복의 미소를 선사하고 대신 그들로부터 따뜻한 애정을 얻기 바란다. 그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삼켜 없애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행복의 미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등의 미소를 문학에 아로새겨 놓았다.

---

64) *Emile*, IV, p. 506.

65) *Emile*, IV, p. 506.

## 참고문헌

### 【자 료】

- Rousseau, J.-J. (1959-1995), Oeuvres complètes I-V, Paris: Gallimard, Pléiade :  
I, Les Confessions, Autres textes autobiographiques (1959).  
II, La Nouvelle Héloïse, Théâtre, Poésies, Essais littéraires (1964).  
III, Du contrat social, Ecrits politiques (1964).  
IV, Emile, Education, Morales, Botanique (1969).  
V, Ecrits sur la musique, la langue et le théâtre (1995).

### 【논 저】

- 류종영(2006),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리오 담로시(2011), 이용철 역, 『루소 :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 서울: 교양인.  
베르그송(1992), 정연복 역, 『웃음』, 서울: 세계사.  
미하일 바흐진(2001), 이덕형·최진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 Chamayou, A. (2009), Jean-Jacques Rousseau ou le sujet de rire,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Clément, P. P. (1976), J.-J. Rousseau, de l'éros coupable à l'éros glorieux, Neuchâtel:  
Bacconnière.  
Elmqvist, C. (1996), Rousseau, Père et Fils,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Hobbes, T. (1950), Leviathan, New York, Polyglot Press.  
Mostefai, O. (2003), Le citoyen de Genève et la République des lettres, New York,  
Petetr Lang Publishing, Inc.  
Starobinski, J. (1961), L'oeil vivant, Paris: Gallimard.  
Strarobinski, J. (1971), J.-J.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suivi de sept essais  
sur Rousseau, Paris: Gallimard.  
Wahl J. (1962), Tableau de la philosophie française, Paris: Gallimard.  
Starobinski, J. (1992), "Surmonter la peur", Rousseau and the eighteenth century,

42 인문논총 제71권 제3호 (2014.08.31)

Oxford: Alden Press.

원고 접수일: 2014년 6월 25일

심사 완료일: 2014년 7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7월 31일

ABSTRACT

---

Quelques Aspects du Rire dans l'Écriture  
Autobiographique de J.-J. Rousseau  
- Comment Surmonter la Dérision

Lee, Yong-cheol\*

Le rire pourrait être considéré comme l'un des thèmes inhérents chez Rousseau tant au niveau du discours littéraire que sur le plan du discours sociopolitique. Cependant, jusqu'à récemment, ce sujet n'a guère attiré l'attention. L'objet de cette étude consiste à examiner d'abord l'influence du rire sur l'identité de Rousseau dans son enfance, pour ensuite aborder de plus près la propriété du rire auquel Rousseau s'est attaché afin d'obtenir la paix et le bonheur de l'âme au coeur de la solitude forcée.

Rousseau se croit souvent une victime de moqueries et il critique la dérision en compatissant à la douleur de son objet. Loin de fonctionner pour punir les vices, la dérision sert à ridiculiser tout ce qui s'écarte de l'opinion manipulée par les puissants, y compris la vertu au détriment des relations humaines dans la société.

Rousseau s'adonne à l'écriture afin de promouvoir la vérité et la vertu, mais il devient lui-même l'objet du mépris général. Il déclare avoir trouvé

---

\*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e bonheur intérieur dans la solitude, tournant en dérision ses persécuteurs. Un des hommes les plus malheureux selon le critère social, pourtant sachant jouir de son existence, il peut avoir un sourire heureux pour lui-même et souhaite offrir à ses lecteurs le sourire susceptible de les consoler; en contrepartie il veut gagner leur affection. Rousseau a gravé ainsi un sourire dans la littérature, que les ténèbres les plus sombres ne sauraient obscurcir; sourire du bonheur intérieur et d'égalité que tout le monde peut partager.